

이달의 초점

## 한국의 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 장윤선, 김태완 |

소득이동통계를 이용한 사회이동성 진단

| 권신정 |

자산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함의

| 이주미 |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 임완섭 |

세대 간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분석

| 김기태 |



## 기획의 글 (Foreword)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기획의 불평등’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이동성은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개인의 미래 기대가 낮아지고 사회적 신뢰 역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계층 간 이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는 고착화되고, 개인의 혁신 동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이동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계층이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2026년 6월호 ‘이달의 초점’은 ‘사회이동성의 진단과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하에 다섯 개의 글로 꾸러졌다. 첫 번째 글에서는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 기회와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 인식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세 편의 글에서는 각각 소득, 자산, 일자리 측면에서 이동성의 실태와 제약 요인을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전이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번 기획이 계층이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완화하고, 기획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책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